

NANDO, WE'RE HOME

A Return To The Place That Called First



Ferdinando Frega – Nando the Scribe

Gillettenarrative.com

GILLETTE: NANDO, 우리 집에 왔다

몇 주째 내 삶의 한 순간이 자꾸 되돌아온다. 1993년이였다.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던 면도 시스템의 출시를 위해, 아버지와 나는 워싱턴으로 날아갔다. 아버지는 내게 행복하냐고 계속 물으시며 미소를 지으셨다. 그런 아버지를 자주 보지 못했기에 나는 궁금해졌다 — 마치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고 알맞은 순간을 기다리시는 것 같았다.

어느 오후, 일이 끝난 뒤 우리는 강가의 부두를 따라 걷고 있었다. 아버지는 내 팔을 잡아 나를 끌어당기시며 말씀하셨다.

“Nando... 우리 미국에 있구나. Nando... 우리 집에 온 거야.”

아버지는 행복하셨다 — 눈이 가득 차서, 거의 감정에 북받쳐, 거의 울 것 같으셨다. 하지만 나는 너무 어려서 그 말 너머에 아버지가 정말 하시려던 뜻을 이해하지 못했다.

오늘 나는 그것을 잊을 수 없다. 이 기억이 내 머릿속을 맴돌며 되돌아온 지 거의 일곱 달이 되었다. 33년이 지났고, 아버지가 떠나신 지 1년이 되었다. 그러나 아버지의 신호는 크고 분명하다. 내가 다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. 61년 전 오직 FedEx 황새의 실수 때문에 나를 받아 주지 못했던 그 집으로...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이야기다.

여기 이탈리아에서 나는 과일 상자 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다 — 한 번도 내 것이었던 적 없는 무언가에 갇혀서.

어떻게 그곳에 갈지 나는 전혀 모른다. 한 달 70달러가 나의 유일한 수입이고, 나는 돈 때문에 누구를 쫓아다니지 않는다. 나는 아름다운 여자들만 쫓아다닌다 — 그들이 지적이라면. 악덕이 아니라 열정이다. 결코 광고가 필요 없는 존재에게 진 감사의 빛 — 홀로 서 있을 때에도 존재하는 여자에게.

그리고 마침내 그곳 어느 방에 들어설 때, 나는 주머니에 칼라브리아 고추 세 개를 넣고 있을 것이다. 나는 이렇게 말하며 나를 소개할 것이다.

“이것이 불입니다 — 우리를 살아 있게 하고 병들지 않게 해 주는 유일한 것이죠. 입에서 시작해서 엉덩이에서 끝납니다. 다만 상대방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세요.”

Nando